

함께 가는 우리



학생주임 김 경 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만남의 장에 있어서 처음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첫번 만남이 앞으로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 가면서 무엇인가를 처음 대하게 될 때 설레임과 기대감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항인들은 '인항고등학교'를 처음 대했을 때 느낌이 어떠했으며, 학교 생활의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의 느낌, 앞으로 본교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나 소감을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인항에 배정되었을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충격과 함께 막막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학생은 절망적인 정도가 아니고 인항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개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학교가 멀지만 학교 버스가 있어서 통학에 불편이 없다.” 든가, “앞으로 촉망되는 학교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똑같다. 네가 하기 나름이고 또 신설 학교의 초창기 선배가 되는 긍지도 가질 수 있다.”와 같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의 격려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고 보니 학교가 외지고, 학교 환경이 정비되지 않고, 학교 진입로가 불편하여 도로는 불결하고, 학교 앞의 공장 폐수처리장 등등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정이 들기보다는 불평만 더해 주는 대상들이었다.

그런 중에도 학생들의 마음을 이끄는 요소도 있었으니, 새 건물, 새 책·결상, 모든 것이 새로운 느낌이었으며, 젊고 패기있는 선생님들, 흰 Y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깨끗한 교복, 선배가 후배에게 입학식 날 뺨지를 달아 주는 행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학 후에도 대체로 학교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

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학교 생활은 하루 하루 시작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실력연마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바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의 극기 훈련을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더욱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유대감 및 우리는 같은 인항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또 입학 초기에 인항인들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을 심어 준 것은 인항의 설립 취지였다. 어느 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많은 향운노조의 조합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학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설 하나라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느끼고, 느낀대로 실행했던 점이다. 여기에 대다수 인항인들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짧고 패기있는 선생님들의 열성이었다. 비록 경력은 짧지만 높은 경쟁을 거쳐서 당당히 합격했으며, 인항의 새로운 전통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자부심, 내용있고 알찬 수업, 학생들과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술선수법, 선생님보다는 인생의 선배·형님 같은 다정다감한 대화로 이어지는 각종 상담 등등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는 순간, 학생들도 “나도 인항의 발전에 무엇인가 해 보자”라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1학기가 지나면서부터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생기고 어디를 가더라도 땀땀이 ‘인항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항은 4살밖에 안 된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인항인들은 사뭇 긍정적이다. 학력의 향상, 각종 특별활동의 활성화, 개방적이면서 자율적인 학교 생활, 학생들의 창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두번에 걸친 예술제, 씨름부의 창단과 그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등 이 모든 것들이 인항을 빛낼 전통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며 그것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항인이다. 자랑스런 인항의 형제들이다.”라는 자부심과 자신감, 이것이 인항 발전의 밑거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염원인 강당 및 체육관의 빠른 시일내의 건립과, 통학의 불편이 완화되도록 동쪽 원목장 앞으로의 도로 개설 및 버스 노선의 더 많은 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4살이면 걸음마의 시기는 아니다. 이제 서서히 뿔 수도 있는 나이다. 우리 모두 손잡고 2,000년대를 바라보며 젊음을 불태우면서 힘껏 달리는 의지의 “인항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